

우즈 7오버파 치고도 웃음 “다리에 힘 더 붙었다”

한 달 반 만에 필드에 돌아온 타이거 우즈(미국)가 7오버파를 기록하고도 웃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즈는 전날 아일랜드 리머릭의 에버 매너 골프 코스에서 열린 비공식 이벤트 대회 JP 맥매너스 프로암 이틀째 경기에서 2오버파 74타를 적어냈다. 전날 5오버파 77타를 친 데 이어 이를 연속 오버파 스코어를 피하지 못했다. 우즈는 2라운드 합계 7오버파로 공동 39위에 그쳤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았다. 이날 14일~17일 '골프 성지'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리는 제150회 디오픈에 출전할 예정인 그는 이번 대회를 마친 뒤 “다리에 힘이 더 붙었다.”며 기뻐했다.

우즈는 디오픈에 나서는 기대감도 숨기지 않



며 “선수로서의 나의 시간이 길지 않겠지만 한 번이라도 높은 수준의 대회에서 경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즈는 다리를 다친 상태에서도 유독 디오픈 출전을 원했다. 세 차례 디오픈에서 우승한 우즈는 2000년과 2005년 두 차례 우승을 이번에 대회가 열리는 세인트 앤드루스 올드 코스에서 따냈다.

우즈는 전성기와 다른 몸 상태로 디오픈에 나서는 전략도 소개했다. 그는 “문제는 내가 다쳤다는 사실”이라며 “왼쪽으로 체중을 실을 수 없다. 자연스럽게 낮은 탄도의 볼을 치게 된다.”고 말했다. 바람이 강해 낮은 탄도의 샷이 유리한 링크스 코스에서는 잘 해낼 자신이 있다는 뜻이다.

사진=golf.com

미네소타, MLB 최초 중견수-3루수 '트리플 플레이'

미네소타 트윈스(이하 미네소타)가 메이저리그 최초로 중견수-3루수의 '삼중살(트리플 플레이)'을 완성하며 승리를 거뒀다.

5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미네소타는 전날 일리노이주 시카고 케런티드 레이트필드에서 시카고 화이트삭스(이하 시카고)와 맞붙었다. 2회 말 호세 아브레우(35)의 솔로포, 7회 말 요안 몬카다(27, 이상 시카고)의 득점과 5회 초 바이런 벅스턴(28, 미네소타)의 2점 홈런으로 팽팽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7회 말 분위기가 순식간에 기울었다. A.J 폴락(34, 시카고)이 무사 1, 2루 찬스에서 우중간으로 타구를 날렸으나 중견수 바이런 벅스턴이 이를 잡아내며 뜬 공이 됐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1루 주자 요안 몬카다와 2



▲ 미네소타 트윈스의 중견수 바이런 벅스턴이 경기 승리 후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twincities.com

루 주자 에덤 앵겔(30)이 뜬공 처리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한 베이스 이상 진출한 뒤였다.

벅스턴은 이 타구를 펜스 앞에서 잡아내 타자 주자 폴락을 뜬공 처리했다. 그리고 곧바로 3루수 지오 아셀라에게 송구했다. 아셀라는 2루를 지나 3루까지 향하던 몬카다를 먼저 태그 아웃했다. 그리고 직접 2루를 밟아 귀루하지 못한 2루 주자 앵겔까지 잡아내며 타자에 이어 1루

주자, 2루 주자를 모두 아웃시킨 트리플 플레이를 완성했다.

이 경기는 10회 연장전 끝에 미네소타가 시카고에 6대 3으로 승리했다.

손흥민 “인종차별 복수한 독일전 인생 최고 경기”



손흥민(30·토트넘)이 지금까지 치른 경기 가운데 2018 러시아월드컵 독일전을 최고의 경기로 꼽았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손흥민은 전날 서울 현대 아디다스 브랜드센터에서 팬미팅 행사를 열었다. 손흥민은 이날 “그동안 치른 많은 경기 중 최고의 경기가 무엇이나?”는 질문에 “(A매치 100번째인) 칠레전, (70m 원더골을 넣은) 번리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경기 등이 있지만, 그래도 독일전을 꼽을 것 같다.”고 대답했다.

한국은 4년 전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을 2-0으로 이겼다. 당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이자, 우승 후보였던 독일은 한국에 일격을 당하며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경기 종료 직전 엄청난 질주로 독일의 빈 골문에 헤기골을 터트렸다.

손흥민은 “세계 랭킹 1위를 이겨서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유가 많다. 어릴 때 독일에 갔고, 힘든 생활을 했다. 인종차별도 많이 당했다.”고 회상하며 “언젠가는 꼭 갚아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손흥민은 “월드컵에서 독일을 만났을 때 두려웠다. 우리 선수들이 진짜 잘해줘서 이겼다. 내가 좋아하는 걸로 복수해 줄 수 있었다.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설명했다.

2008년 독일 함부르크 유소년 팀에서 유학 생활을 시작한 손흥민은 함부르크, 레버쿠젠에서 뛰다 2015년 여름 토트넘으로 이적했다.

사진=isplus.com

Kim's Handyman 리모델링전문

페인트/ 부엌
화장실/ 마루
타일/ 캐비닛
윈도우/ 지붕수리
전기/ 플러밍
각종 리모델링

작은일도 합니다!

Kim's Handyman
562.833.0766

Home Remodeling